

명백한 위법 심사, 효력정지 신청키로

광주유치 실패 후 다시모인 과학벨트 유치추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호남권유치위원회가 17일 전체 회의를 열고 정부의 입지선정과 관련 이명박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등 정책담당자들의 사퇴를 공식요구했다.

호남권유치위는 또 위법 소지가 있는 심사절차에 대한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병행하면서 과학벨트 입지선정 재심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광주 과학벨트의 캠퍼스로 편입되기는 했으나 대전이나 경북권에 비해 우수한 입지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심사로 인해 연구단 조성 및 예산 지원 규모가 최하위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광주시와 호남권유치위가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로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상당기간 계속될 전망이다.

호남권유치위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공동위원장인 강운태 광주시장과 김진희 서울대 교수 그리고 박주선, 김재균, 김기정 의원 등 유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회의를 갖고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원천무효로 규정했다.

호남권유치위는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결정은 절차나 내용, 심사기준에 있어 불공정하고 위법적인 소지가 많아 원천무효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고 재심사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일련의 심사과정에서 국민에게 갈등과 상처를 준데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주호 교과부장관을 비롯한 정책 관련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남권유치위는 또 행정적·법적 대응조치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행정정보공개 청구와 함께 재심사 청구 등에 나설 예정이다.

정보공개 대상은 ▲거점지구 최소 기준면적을 165만㎡(50만평) 이상으

정보공개 청구후 재심사 정식요청

MB 사과·교과부 장관 사퇴 요구

로 축소된 이유 ▲연구기반 37.12%, 산업기반 18.08%, 부지확보 용이성 12.96% 가중치 부여 근거와 누가 정했는지 여부 ▲지반, 재해안정성 배점 배제 이유 ▲평등 군 훈련장 부지 대상 제외 이유 ▲현지실사나 지자체 의견청취 없이 졸속심사 이유 ▲대전 후보지 2곳이 1개 후보지로 묶여진 이유 ▲유류허보지에 없던 울산시가 DUP연합캠퍼스로 묶여 선정된

이유 등이다. 호남권유치위는 또 민주당 차원에서 불공정한 심사과정을 규명하고 정국회의 예산심사를 통해 호남에 대한 지역균형적 차원의 배려를 촉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벨트 유치 과정에서 과학 관련 인제육성이나 네트워크가 부족하다는데 인식을 함께하고 미래 인제 육성 태스크 포스트를 가동해

과학 인재 육성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과학벨트 입지선정 심사에서 3위를 했다거나 예산지원액이 부족하다고 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전 과정에 위법적 소지가 많기 때문에 원천무효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과학벨트는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호남유치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경진 의원은 16일부터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정부의 과학벨트 입지 결정에 반대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17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호남권 유치위원회 긴급회의에서 참석 위원들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은 민주당 지역국회의원들이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가슴에 피멍 드는거 같다, 민주당은 뭐 했나”

호남유치위, 지역국회의원들 성토

호남권유치위원회가 17일 오후 정부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선정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긴급회의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일부 위원들이 민주당과 민주당 소속 지역국회의원들에 대한 서운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광주시가 과학벨트 유치전에 뛰어 들자 민주당은 당론을 ‘총청권 입지’

로 정하고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도 이 같은 당의 방침에 지역민의 염원인 과학벨트 유치에 소극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다. 박흥석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등 일부 위원들이 입지선정 전까지 호남권유치위 회의에 불참했다가 이날 뒤늦게 참석한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들을 집중 성토하면서 회의 시간이 다소 지체되기도 했다. 박 회장은 이날 “민주당과 지역 국

회의원들이 지금까지 무엇을 했다고 이제야 회의에 참석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다”며 “지역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반성해야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병식 초당대총장 역시 “과학벨트를 유치해야한다며 강 시장이 고군분투하고 지역민 300만명이 염원을 모아 서명운동에 참여할 때 호남이 뒷받침하는 민주당과 지역국회의원들은 애써 무시했다”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대전·충청권과 대구·경북권이 지역국회의원 등 정치권이 모두 나서 ‘세몰이’에 나서 정부를 압박하고 대구·경북권은 정권퇴진운동까지 언급하며 지역정치권이 반발하고 있는 것에 비해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은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는 것이 이들 위원들의 한결같은 주장이었다.

과학벨트 본원 유치에 ‘올인’하며 진두지휘했던 민주당 소속 강운태 광주시장까지 민주당에 대한 불만을 털어냈다.

강 시장은 이날 호남권유치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과학벨트 입지선정과 관련 정당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며 “야당은 정부의 정책결정을 견제하고 감시, 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정부가 과학벨트 심사를 엉망으로 했을 때 민주당은 과연 무얼 했느냐”고 질타했다.

강 시장은 또 “과학벨트와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당론이나 입장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제 가슴에 피멍 드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주선 의원은 “심사기준이 명백히 잘못됐고 따라서 입지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과학벨트 연구단 ‘GIST캠퍼스’ 어떻게 2018년까지 6000억 지원

5개안팎 연구단 들어설 듯

광주시, 입지 미정 10개 연구단 추가 유치 총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캠퍼스가 들어서는 광주과학기술원(GIST)에는 오는 2018년까지 기초연구지원과 연구기반조성 등에 각각 4000억원과 2000억원이 투입된다.

GIST 내에 들어설 연구단은 현재로서는 5개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출품할 예정인 기초과학연구원이 지역의 연구역량이나 신청 프로젝트에 따라 설치될 승인하기 때문에 2012년 하반기나 되어야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GIST가 광·신재생에너지·융복합 등의 지역의 특장 및 장점을 살려 연구과제를 제출하면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이를 검토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과제에 맞춰 연구단을 구성, 1년에 100억원씩 10년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지속적인 지급 여부는 연구 개시 3년 뒤 평가해 판단하고 연구단은 지역대학이나 기업 등과 컨소시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연

구단은 총 50개이며 이 중 2012년까지 일단 25개 내외의 규모가 들어설 예정이다.

정부가 아직 입지를 선정하지 않은 10개 연구단(예산 규모 8000억원)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는 일단 심사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해 정부에 항의하고 법적인 조치에 나서는 것과 동시에 이를 나머지 연구단을 끌어들이 지역 몫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1조500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는 경북권에서 정부의 입지선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것은 나머지 연구단과 예산을 끌어오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정부는 나머지 10개 연구단을 수도권이나 일부 소외된 지역대학에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과학벨트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추가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요즘은 사는데 5·18입니다

호남을 대표하는 여행 브랜드

조이 여행사 JOYTRAVEL

대표이사 최 규 환

대표전화. (062)234-322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FAX. (062)234-3141 http://www.joy2000.co.kr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제주도

오렌지&스타크루즈로 떠나는 제주도 여행 !!

- 2박3일 목포-제주도 ₩139,000원 ~
- 2박3일 장흥-제주도 ₩159,000원 ~
- 2박3일 항공-제주도 ₩249,000원 ~

불포함 : 기사가이드팁 10,000원, 수송비(광주-목포&장흥)

*후원 : 아트랜드, 퍼시픽랜드

광주에서 출발하는 울릉도 1박2일 ₩279,000원 ~ 2박3일 ₩309,000원 ~

광주에서 출발하는 흥도 1박2일 ₩177,000원 ~

일본 한정특가

광양혜리로 떠나는 일본 큐슈4일 “선착순 한정특가”

6월 5일, 6월 8일 전통료칸 1박 ₩198,000

불포함 : 선내식 1회, 유류할증료(₩35,000), 기사&가이드팁 (₩30,000), 광주↔광양 수송비

일본

- 4일 큐슈빌라형콘도속박 ₩289,000원
- 4일 일본 나가사키, 큐슈 온천여행 ₩378,000원
- 4일 일본의 전통료칸 카이세키요리를 맛볼 수 있는 온천여행 ₩378,000원
- 4일 오사카,와카야마 ₩798,000원

불포함:개인경비, 기사&가이드팁 (₩30,000)

중국

광주출발 여름방학을 이용해 인산해중에서 대인후회로 떠나는 고구려역사탐방!!

- 6일 대련 심양 백두산 고구려유적 ₩659,000원 ~ 출발일: 7/21,23,28,8/6,11,13 불포함:개인경비, 가이드&기사팁(20\$)
- 4일 무안-상해,항주,추가 ₩269,000원 ~ 출발일: 6/6,13
- 4일 무안-상해,항주,황산 ₩439,000원 ~

불포함:유류할증료(₩138,600),중국단체비자, 기사&가이드팁 (₩30)

동남아 무안출발

변라카이 직항!! 무안에서 출발하는 낭만 동열지 “변라카이”

무안-칼리보적항(단,10회) 운항일 7월 23일~ 8월 24일

- 2박4일 ₩799,000원 ~ (수요일출발)
- 3박5일 ₩849,000원 ~ (토요일출발)

불포함사항:기사&가이드팁,유류할증료

미주 2011 봄 미국/캐나다

- 9일 미서부 3대캐넌 태평양 해안 완전일주 ₩2,390,000원 ~
- 9일 미동부/캐나다 동부(퀘벡),나이아가라 완전일주 ₩2,890,000원 ~
- 13일 미서부(3대캐넌)/미동부(나이아가라) 완전일주 ₩3,590,000원 ~

불포함:각종팁(가이드/기사 1일/\$10, 식당,호텔 \$1), 5월이후 유가할증료인상분, 선배관, 미국 ESTA 비자(US\$14 - 대행시 20,000원)

* 당사는 관광진흥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철저히 준수합니다. * 2억원 영업증명보험 가입 / 여행금리 가입업체 * 공동주관: 여행 경비 1인 기준, 여행지원금 가입(해외상품 1인당, 국내상품 5인당),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 및 부두 이용료, 유류할증료 포함 * 교통비: 항공 및 선박, 전열버스 / 전지역 * 경비:항공 (단, 기사/가이드 봉사료, 선박관광, 각종 비자비용 별도) * 최소 출발인원: 상용에 따라 다름 * 상기 요금은 환율 및 항공요금 변동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예약시 계약서(취소규정) 및 일정표를 반드시 참고하십시오. 아름다운 여행이 시작되는 곳 조이여행